

동지가 금속노조다!

대전충북지부

별호

발행인 : 김정태

발행처 : 금속노조 대전충북지부 교육선전부

지부 총파업으로 돌파하십시오!



지부교섭 결렬!

6월 15일(목) 10차 지부교섭에서 결국 교섭이 결렬됐다. 지부는 진전없는 교섭을 잠시 중단하고 2주간 냉각기를 갖기로 했다. 사용자측에 충분히 논의할 시간을 주고 진전된 제시안을 마련해서 7월 초 교섭을 재개하기로 했다. 그동안 10차례나 교섭이 진행되는 동안 사측의 제시안은 단 2번 나왔다. 그마저도 논의할만한 수준의 내용은 전혀 없었다.

노조할 권리 보장! 2017임단투 승리!

올해 지부는 노조파괴 사업장의 기나긴 투쟁에 중 지부를 찍고, 소수노조의 노조할 권리 보장을 위해 창구단일화 폐기 노조법 개정 투쟁을 핵심적으로 벌이고 있다. 복수노조법이 노조파괴에 악용되면서 소수노조는 조합활동 자체가 완전히 가로막혀있다. 유성, 엔텍, 보쉬전장, 콘티넨탈, 한국타이어, 현대성우메탈 등 많은 복수노조 사업장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지부는 노조법 개정안 내용 중 창구단일화 폐

기가 핵심적인 내용으로 다뤄지도록 꾸준히 실천활동을 벌이고 있다.

임단협은 두 달이 넘도록 제대로 된 제시안 한 번 없이 제자리 걸음을 걷고 있다. 지부는 여름 휴가 전 타결을 위해 7월 초 위력적인 총파업을 벌일 예정이다.

한 날, 한시에! 한 뜻으로!

지부는 노조파괴-복수노조 사업장의 투쟁승리와 2017 임단투 승리를 위해 총파업 투쟁을 준비하고 있다. 우리는 전 지회, 전 조합원이 한 마음으로 투쟁에 나서면 얼마나 큰 힘을 발휘할 수 있는지 작년에 확인했다.

올해도 다시 한 번, 우리의 힘을 보여주자. 노조법 개정엔 힘을 싣고, 임단투를 승리로 이끌기 위해서는 위력적인 총파업이 반드시 필요하다. 우리 지역에서부터 강력한 파업으로 힘을 모으자.

<노조파괴 분쇄 시즌2>

복수노조 교섭창구 단일화 떼기하거!

2011년부터 우리 지역에 노조파괴 광풍이 몰아쳤다. 우리는 유성기업, 보쉬전장, 콘티넨탈에서 벌어진 노조파괴 책임자 처벌과 해고자 복직을 요구하며 싸웠다. 유성기업 유시영 회장은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받아 교도소 생활 중이고, 보쉬전장과 콘티넨탈의 해고자는 모두 복직했다.

이제는 노조파괴 분쇄 투쟁의 새로운 국면을 만들고 있다. 지부는 소수노조의 노조할 권리 보장을 위해 복수노조 교섭창구 단일화 폐기 투쟁을 벌이고 있다. 소수노조는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아예 행사할 수 없게 만드는 창구단일화는 반드시 없어야 한다.

금속노조는 복수노조를 악용한 노조파괴를 금지하기 위한 법안을 준비 중이다. ‘노조파괴 금지법’을 제정해 노조할 권리를 완전히 보장하라는 것이다. 이를 위해 범국민 서명운동을 벌이고 강력한 투쟁을 통해 국회를 압박할 계획이다.



< ‘노조파괴 금지법’ 제정을 위한 범국민 서명운동 >

- 복수노조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 폐기
- 노조파괴 악질 사업주 징역형
- 노조파괴로 돈 버는 노무사 영구 퇴출
- 부당노동행위 입증 책임을 사용자에게 전환
- 조합원만 표적으로 하는 직장폐쇄 원천 금지

*** 6/30(금)까지 전 조합원, 가족, 주변 친구들까지 서명운동에 동참바랍니다! ***

유성기업 회장 구속-원청 현대차 기소-복수노조법 개정 노조파괴 분쇄투쟁의 끝을 보자!

유성기업 노조파괴를 직접 지시하며 개입한 현대차 임직원 4명도 드디어 기소됐다. 유성기업에서 노조파괴가 벌어진지 6년만의 일이다.

현대차는 2011년 유성기업에서 노조파괴가 벌어질 당시, 어용노조 조합원을 늘리도록 지시하고 개입했다. 원청업체가 하청업체 노조를 상대로 부당노동행위를 저지른 것에 대해 형사 책임을 묻는 것은 최초다. 현대차가 ‘노조파괴 공범’으로 인정된 것이다.

그동안 유성지회의 투쟁은 참 험난했다. 한광호 열사를 보내는 아픔도 있었다. 그렇지만 그 어려운 투쟁의 결과가 조금씩 나타나고 있다. 누구도 장담하지 못했던 현대차 기소까지 이끌어냈다. 유성기업 유시영 회장을 구속시켰고, 원청사인 현대차도 법의 심판대에 세웠다. 그리고 국회를 상대로 복수노조법 개정 투쟁까지도 하고 있다. 유성의 투쟁은 노조파괴 분쇄 투쟁의 모든 것을 담고 있다. 이제 그 아름다운 끝을 함께 만들자.